

kiri Weekly

2014.10.6 제302호

이슈

일본 제3보험 상품동향 및 시사점

글로벌 이슈

세계 경제의 과도한 부채와 저성장 위험

미국,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시행방안 확정과 시사점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일본 제3보험 상품동향 및 시사점

김세중 연구위원, 김혜란 연구원

요약

-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악화됨에 따라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보험회사의 고연령 보장 제3보험 시장 진입전략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보험산업 구조가 유사하고 인구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 최근 생명보험산업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악화되는 가운데 뚜렷한 신성장 동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빠르게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와 연계한 신상품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일본 제3보험 상품은 보장내용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지만 위험률에 대한 안전할증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입연령 및 보장기간, 배당유무 등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고연령까지 보장하는 경우 대부분 갱신형으로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갱신 시 보험료 상승 부담으로 실제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일본의 제3보험은 다양한 가입연령 및 보장기간으로 고연령층 가입이 용이하고 고연령에 충분한 보장을 제공함.
 - 현재 일본은 안전할증 등 보험요율 산출과 관련한 감독규제가 거의 없으며, 감독당국은 보험료가 지나치게 낮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짐.
 - 일본 감독당국은 2006년 보험회사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제3보험 분야의 준비금 제도를 강화하는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 산출시 상당히 보수적인 안전할증을 적용함.
-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제3보험 분야에서 성장 동력을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감독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생명보험회사는 고연령층 가입이 가능하고 고연령까지 보장이 가능한 제3보험 상품을 확대함으로써 고령화에 대응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감독당국은 데이터가 적고 불확실성이 큰 제3보험 시장에서 생명보험회사가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 시 위험률에 대한 안전할증의 최대 한도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

1. 검토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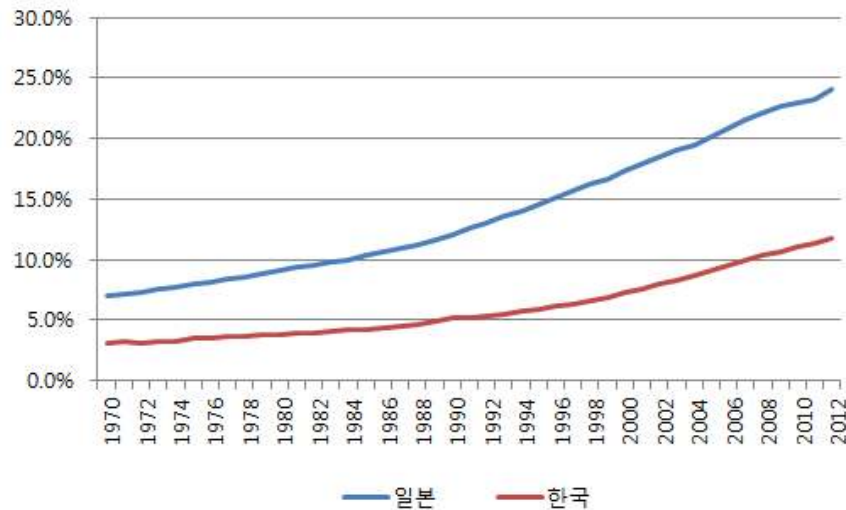
- 최근 생명보험산업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악화되는 가운데 뚜렷한 신성장 동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생명보험산업은 FY2013 기저효과¹⁾로 인해 -8.0% 성장을 기록한 이후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수요가 살아나고 있지만 수요 회복세는 크지 않으며, 당기순이익은 FY2011부터 3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었음.
 - 생명보험산업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종신보험, 변액보험, 저축성보험으로 이어지는 신상품 전략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해 왔으나 최근에는 산업의 성장을 이끌만한 새로운 상품군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생명보험산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신규 시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와 연계한 신상품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빠르게 고령화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연령까지 보장이 가능한 건강 및 질병보험 등 제3보험 분야 보험상품 수요 확대가 예상됨.
 - 그러나 고연령까지 보장이 가능한 제3보험 상품 개발은 데이터가 미비하고 미래 발생률 추세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우리나라는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전용 암보험, 가입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SI(Simplified Issue)보험 등을 통해 이러한 신수요에 최근에서야 대응하기 시작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보험회사의 고연령 보장 제3보험 시장 진입전략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보험산업 구조가 유사하고 인구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일본은 1970년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를 상회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1994년에는 14%를 상회하는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2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4.1%로 우리나라의 11.8%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임.

1) FY201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세계개편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고성장을 기록함.

〈그림 1〉 일본과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비중 추이



주: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OECD.

- 일본은 고령화 심화와 함께 질병 및 건강을 담보하는 제3보험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으며, 2001년 일본 국내 보험회사의 단독 판매가 허용된 이후 2012년 개인보험 보유계약 연납화 보험료 중 22%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함.
- 일본 보험회사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건강보험, SI보험, 여성형 보험 등의 보장상품에 대해 높은 가입연령 및 보장연령을 제공하는 다양한 제3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표 1〉 일본 개인보험 및 제3보험 연납화 보험료 증가율

구분	2009	2010	2011	2012
개인보험	4.7%	1.9%	4.6%	4.7%
제3보험	3.0%	3.7%	3.9%	2.5%
제3보험 비중	22.8%	23.2%	23.1%	22.6%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2. 일본 제3보험 상품 동향



- 일본 제3보험 상품 중 의료보험, SI보험, 여성형 보험, 재해·상해 특약 보험 등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보장내용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제3보험 상품과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²⁾
 - 일본의 의료보험은 입원, 수술, 사망, 통원치료, 방사선치료, 고도장해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SI 보험 또한 입원, 수술, 사망, 방사선치료, 통원(특약) 등 우리와 유사한 보장내용을 보장함.
 - 여성형 보험의 경우 자궁근종·난소기능장애·유산·임신합병증 등 여성에 특화된 질병을 주로 보장하며, 재해·상해 특약 보험은 사고로 인한 골절, 관절탈구, 힘줄파열 등 특정손상보험이나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당뇨, 중증고혈압성질환 등 6대 질병, 재해입원, 재해사망보험 등을 보장함.
 - 일본 제3보험 상품은 우리나라 제3보험 상품과 보장내용에 있어 차별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나라 보험상품이 일본 상품을 참고하여 개발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일본 제3보험은 우리나라와 달리 가입연령 및 보장기간, 배당유무 등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연령층 가입을 용이하게 하고 고연령에서의 보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질병보험의 경우 유아, 청년층 등 특정 연령대를 타겟으로 하는 의료보험도 존재하며 일부회사의 경우 가입연령을 세분화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70세 또는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거의 모든 상품이 종신까지 보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상품이 무배당으로 운영되고 있음.
 - 또한 가입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SI보험도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들 상품은 가입시 검진이 필요 없거나 간단한 고지만을 취급함으로써 과거 병력이 있거나 고연령인 경우에도 가입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남.

2) 新日本保険新聞社(2012), 第三分野商品のすべて.

〈표 2〉 일본 주요 질병보험 상품 현황

보험회사	담보	가입연령	보장기간
메이지야스다	입원, 수술, 통원치료, 재해	12~70세	종신
부국생명	재해입원, 질병입원, 입원, 수술, 방사선치료	15~75세	종신
미즈이	부상질병입원 및 수술 등 상해	종신남: 30~75세	종신
지브롤터	입원, 수술, 고도장해	0~75세	정기형: 10년, 15년, 50세~80세 만기(5세 단위)
소니	재해입원, 질병입원, 수술, 사망	3세~75세	종신
메트라이프 알리코	질병입원, 재해입원, 수술, 사망	만 3세~만 80세	종신
약사	입원, 수술, 방사선치료	0~75세	종신

자료: 新日本保険新聞社(2012), 第三分野商品のすべて.

- 여성형 보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입연령이나 보장기간이 까다로운 편이나 70세 이상의 가입을 허용하거나 SI보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상품은 종신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질병 및 건강보험 상품의 경우 고연령까지 보장 기간 확대 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부분 갱신형으로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갱신 시 보험료 상승 부담으로 실제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 우리나라 고연령 보장 제3보험 상품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5년 갱신형으로 판매되고 있음.
- 이들 상품은 보험료 갱신 시 연령의 자연증가로 인한 보험료 상승뿐만 아니라 발생률 증가 추세로도 보험료가 상승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연령층은 보험계약 유지가 어려울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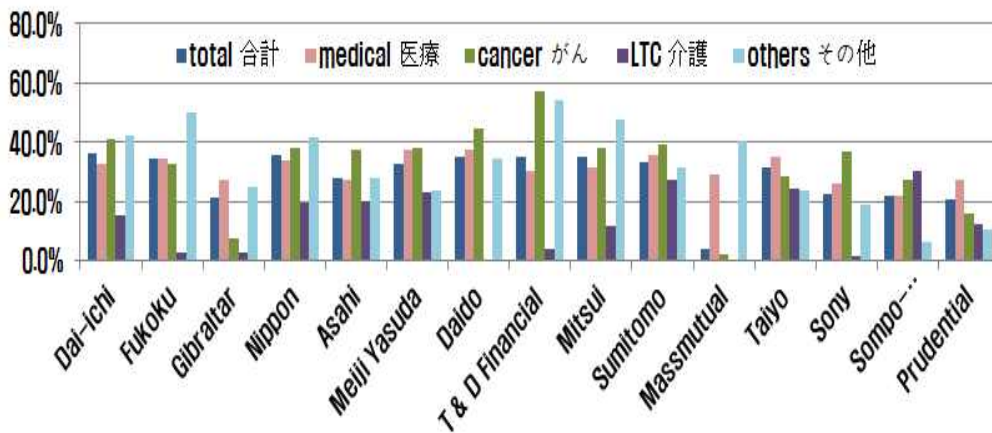
3. 일본 제3보험 상품관련 규정 및 제도



- 일본 보험회사들이 가입연령과 보장기간이 다양한 제3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위험률에 대한 안전할증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제3보험 상품은 우리나라에서 손해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암보험, LTC보험 등 건강담보에서의 발생율도 매우 낮은 수준임.
- 2012년 일본 주요 5개 생명보험회사³⁾의 사업비차익은 3천 5백억 엔에 그친 반면 위험률차익은 1조 5천억 엔을 실현하여 위험률차익이 사업비차익에 비해 약 4.4배에 달하는 등 일본 생명보험 회사들은 위험률차 중심의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 생명보험산업이 위험률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위험률에 대해 충분한 안전할증을 허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그림 2> 2011년 일본 주요 생명보험회사 종목별 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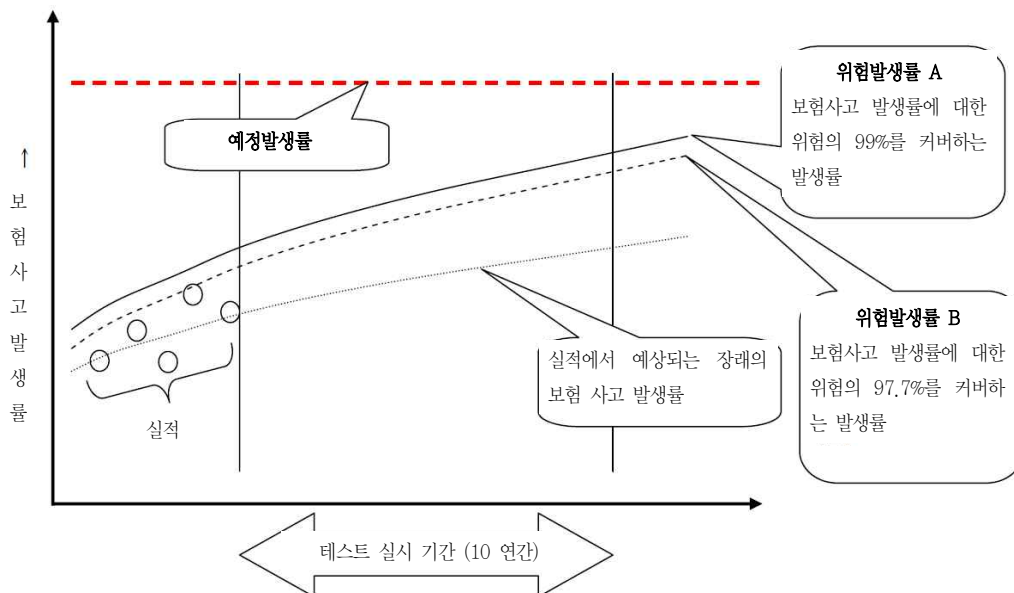
주: 발생률 = (지급보험금 + 실제사업비) / (예정위험보험료 + 예정사업비)
 자료: 각 사 연차보고서.

- 현재 일본은 안전할증 등 보험요율 산출과 관련한 감독규제가 거의 없으며,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건전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상품인가 시 보험료가 지나치게 낮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짐.
- 일본 보험업법에는 보험료 산출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으며, 감독지침을 통해 보험료가 타당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계산되도록 하고 있음.⁴⁾
- 일본은 1996년 신보험업법 제정을 통해 보험료가 자유화되었으며, 보험료 자유화 이후 현재까지 보험료와 관련한 직접적인 규제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안전할증과 관련하여 부서행정 협의 정도에 그침.

3) 제일생명, 스미토모, 아플라, 간포생명, 메이지야스다를 대상으로 조사함.
 4) 일본 보험회사를 위한 종합적인 감독지침 IV-5-1 (1) “保険料の算出方法については 十分性や公平性等を考慮して 合理的かつ妥当なものとなっているか”.

-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감독규정은 표준생명표(사망, 연금개시 후, 제3분야) 규정으로 각 보험회사는 자사요율을 사용할 수 있지만 표준생명표에 근거하여 준비금을 적립하기 때문에 표준생명표 수준에서 위험률을 결정함.
 - 일본 감독당국은 상품인가 시 보험료가 지나치게 낮아 보험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될 가능성을 중심으로 보험요율을 점검하며, 충분한 안전할증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시장의 경쟁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판단함.
 - 안전할증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감독당국과 협의함.
- 한편 2006년 일본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의료보험, 암보험, 개호보험 등 질병 및 건강을 담보하는 제3보험 분야 준비금 제도를 강화하는 규정을 발표함.
- 일본 보험감독당국은 제3보험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 감독청·대장성 고시 제 22호(헤세이 12년 6월 23일)”를 통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한 부채 타당성 테스트를 도입함.
 - 의료보험, 암보험, 개호보험 등 질병이나 상해를 담보하는 제3보험 분야는 2001년 부터 일본 국내 보험회사의 단독 판매가 허용되었으며, 고령화로 인해 보험수요가 사망보장에서 질병 상해 보장으로 변화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보유계약이 급증함.
 - 2004년 제3분야 보험은 생명보험회사 전체 보유계약의 20%를 상회할 정도로 확대됨.
 - 제3보험 분야는 상품내용이 다양하고 관련 데이터가 충분치 않으며 종신보장 상품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불확실성이 큰 상품이지만 2006년 이전까지 책임준비금 적립을 위한 발생률의 사후검증은 각 사의 판단에 맡겨지고 있었음.
- 책임준비금 스트레스 테스트는 매년 실시되며, 예정발생률이 현재 발생률 추세를 반영한 향후 10년간 발생률의 VaR 99% 수준을 상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 산출시 안전할증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결정됨을 알 수 있음.
- 책임준비금 스트레스 테스트는 보험회사 실적치를 바탕으로 한 현재 발생률에 추세를 감안하여 예상되는 장래 보험사고 발생률을 계산한 후, 10년 기간 동안 예정발생률이 장래 보험사고 발생률의 VaR 99%를 하회할 경우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 VaR 99%에 해당하는 발생률을 A라 하고 VaR 97.7%에 해당하는 발생률을 B라 할 경우 예정발생률 P가 발생률 A를 상회하는 경우 추가 준비금은 없으며, P가 A와 B 사이인 경우 A-P를 상한으로, P가 B보다 작을 경우 A-B를 상한으로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함.

〈그림 3〉 일본 제3보험의 책임준비금 스트레스 테스트 예시



자료: 金融監督庁・大蔵省告示第22号(平成12年6月23日).

- 스트레스 테스트는 매년 보유계약에 대해 실시되지만 보험료 산출 시 예정발생률을 발생률 A 수준 이하로 할 경우 바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보험료 산출시에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 보수적인 안전할증을 통해 확보된 사차익은 대부분 보험회사 수익으로 직결되며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유배당 계약을 통한 계약자 배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 유배당보험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판매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취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유배당 보험을 판매하는 상호회사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는 배당비율은 20%까지 낮게 설정할 수 있음.
 - 주식회사의 경우 최근 배당상품 출시 움직임이 있으나 이차 배당만을 실시하고 사차배당은 하지 않는 형태인 것으로 알려짐.
 - 1996년 보험업법 개정 이전에는 계약자 배당이 90%였으나 이후 80%로 하향조정된 후 2002년에는 “20%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됨.
 - 상호회사 유배당계약의 계약자 배당률을 낮게 조정한 이유는 상호회사의 경우 자본 부족으로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 유보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일본은 1990년대 이차역마진으로 다수의 보험회사가 파산한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 때문에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에 직결되는 수익구조 및 수익성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거의 없음.

4. 시사점



- 보험회사의 저성장·저수익 구조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고령화 심화로 새롭게 등장하는 보험수요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한 때이며, 이를 위해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고연령층 가입이 가능하고 보장기간도 장기이면서 비갱신형인 제3보험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보험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연령까지 보장이 가능한 제3보험 시장에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험회사들과 달리 일본 보험회사들은 고연령까지 보장하는 제3보험 상품에서 충분한 위험률 차익을 확보하고 있음.
 - 일본 보험회사들이 제3보험 상품에서 충분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는 위험률에 대한 규제가 없고 상품개발에 있어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고령화로 인해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제3보험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감독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데이터가 적고 불확실성이 큰 제3보험 시장에서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시 위험률에 대한 안전할증의 최대 한도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안전할증 등 보험료율에 관한 규제가 거의 없으며, 제3보험의 경우 발생률 추세를 감안하고 보수적인 책임준비금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보험료 산출에 있어 상당한 안전할증을 허용하고 있음.
 - 배당과 관련해서도 상호회사만이 유배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는 배당률이 20%까지 낮게 적용되는 등 사차익 중심으로 얻어진 수익의 대부분을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유보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연령층이 가입 가능하고 고연령까지 보장 가능한 제3보험 상품을 확대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들은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라 고연령층이 가입 가능하고 고연령까지 보장 가능한 건강 및 질병 보험 등 제3보험상품에 대한 수요 확대에 대응해야 함.

- 또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3보험 상품 유형인 갱신행 상품보다는 비갱신행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고연령 도달 시에도 보험료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인 보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보험회사의 제3보험 상품 확대는 공사협력을 통한 보험회사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에도 기여할 것임. **kiri**